



# 상악전치부 단일치 발치 즉시 후 임플란트 매식 증례

김형진\* | 서울아산병원 치과보철과

구강 주위의 심미성 회복과 치질의 보존은 현대 치의학의 중요한 흐름이다.

전치부는 구치부에 비해 외상으로 치아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치조골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연조직 및 경조직이 부족한 전치부 결손부를 치료할 경우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이유로 더욱 세심한 치료계획이 요구되며 기능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심미성이 결여될 경우 심각한 문제와 함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즉시 식립의 경우, 적절한 증례의 선택과 수술 및 보철의 원칙을 지킨다면 발치 후 수술부의

손상 및 치조골의 흡수를 줄일 수 있으며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Flapless Surgery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조직(marginal gingiva, papilla)의 손상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증례들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치관-치근 파절로 상악 전치부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 발치 시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여 순측골 소실을 최소화 하고 치유기간의 단축을 꾀하였다.

또한 심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주위 조직 및 보철물로부터 얻어진 바, 이에 증례보고를 하는 바이다.